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복초등학교교장

국화축제 유감

축제, 익산 국화축제, 마산 국화축제, 고창 국화축제 등이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청 국화축제가 있다. 이들 국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화축제는 국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배기술을 홍보해 국화 동우회가 자생적으로 생겨 가정에서도 국화를 전문적으로 가꾸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꽃을 가꾸는 심성은 아름다운 봉사 정신이며 좋은 여가선용의 취미다. 국화축제장의 수많은 국화가 오래됐으면하는데 대부분 개화 기간이 10여 일이며 야외에 전시된 국화는 가을 비바람을 만나면 쉽게 지게 되어 가꾼 정성이 너무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

국화는 소국과 대국으로 분류하고 대국으로 입국을 가꾸며, 소국으로 현애국을 가꾸고 지도 모양 아치 등 여러 가지 모양 장식을 하며 가꾼다. 여러 품종의 다양한 색상과 모양, 가꾸는 방법에 따라 달린 국화에서 풍기는 향기는 국화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이 국화 향기에 잠기게 한다. 필자도 학교 재직 시에 꽃 가꾸기에 취미를 갖고 국화재배를 하여 아동들이 손수 가꾼 국화로 교내 국화전시회와 축제를 했는데, 아동들의 가꾸는 정성이 꽃이 피는 보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국화꽃이 피기까지 하나의 단계를 보면 함평 국화축제, 화순 국화

면 성실에 교육적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다른 일에도 전이되어 하나의 여가선용 취미를 지속해서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보면 막연히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가꾼 이의 노력과 기다림에 감사의 정을 느낀다.

지방 자치화 시대가 되고 민선 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지역축제문화가 시작되었는데,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지역축제로 꼽는 것이 국화축제다. 국화축제를 하는 곳의 일부 농경지가 국화밭으로 변했고 수많은 종류의 특색있는 국화가 피어 기쁨을 토하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국화축제 전시장은 장관이고 보는 이마다 감탄사를 한다. 어떻게 저렇게 길렀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국화본체 전시장에 들어가 보면 이 년-삼 년을 가꾼 석부작 목부작은 분재작품이며 작품을 가꾼 정성에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국화는 심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봄부터 가꾸고 손질하기를 수백 수천 번 하여 꽃이 피게 된 것이다. 함평 국화축제에서 선보인 대국 한 뿌리에서 나온 국화가 공 모양의 원형을 이루고 일천사백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은 가관이었으며 국화재배기술이 선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북부

터 수고한 가꾼 이의 정성이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한다. 국화축제 기간이 끝났어도(11월 전후) 국화는 찬 서리를 맞으면서까지 피어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 국화축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은 별로 없고 지출만 많이 되는 축제라든 검토하게 하면서 알 속 있는 축제가 되게 했으면 한다.

지역주민 국화동우회가 결성되고 그들이 취미 삼아 재배한 작품이 전시되어 자랑하는 축제로 폭을 넓혔으면 한다. 국화축제장에 가보면 주변에 먹거리 장터가 조성되어 호객하고 있고 상설무대가 생겨 가무를 자랑하며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고 있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한 지방향토문화에 맞는 다양한 전시 관람 효과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국화축제가 전국 시·군마다 이루어진다면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낭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국화축제를 하는 지역 단체에서는 국화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타당한 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다른 시·군에서 하나씩 우리 시·군에서도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화를 심고 가꾸는 노력의 정성이면 다른 새로운 것도 개발하여 재배할 수 있으므로 지역 소득과 직결된 지역 농산물 품평회 같은 지역 특색 있는 가을 잔치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

독자기고

가을철 산이나 들에서 전염병 주의 생활화 해야

가을철에는 산이나 들풀에 서식하는 쯔쯔가무시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쯔쯔가무시증은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산이나 들에서 주로 서식하는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9월에서 11월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다.

풀숲에서의 야외활동이나 캠핑 또는 등산, 야생식물 채취, 감따기 및 밭잡기, 농작업 지원, 주말농장을 가꿀 때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증상을 살펴보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며, 쯔쯔가무시균에 감염 후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된다.

쯔쯔가무시증 치료법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예방법을 살펴보면 야외활동 시에는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을 구분해서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리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신기석
광산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진압팀장

독자기고

안개 속 감속원칙 배려방어 안전운행 생활화 해야

요즘 가을철 새벽이면 목포, 광주에서 순천간 호남고속도로는 물론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국도에서 자주 안개가 끼는 것을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고 상춘지절에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나면서 안개가 끼는 날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상을 질주하는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

야가 100미터도 채 안되는 아둠 속의 도로를 마냥 달리고 있다. 매년 안개로 인한 고속도로와 국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개는 바람에 약하고, 하늘이 맑아 공기가 습할 때 공기 속에 있는 물기가 땅 표면 가까이에서 엉겨 붙어 생긴다. 특히 새벽에 장막같이 두꺼운 안개가 끼어 있다가

해가 뜨면 공기가 데워져 안개가 흩날리면서 더욱 시야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안개가 많은 새벽시간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개가 끼어 있을 때는 시계(視界)가 아주 좁아지고 보이는 거리는 짧아져서 더욱더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차끼리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차폭등, 비상등, 안개등 등 켜 수 있는 모든 등화장치는 다 켜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상대 운전자에 식별하기 쉽게 해야 한다. 세 번째, 편도 1차로인 국도상 커브 길을

돌 때는 경적을 울려서 서로의 위치와 존재를 알려야 한다.

또 창문을 조금 열어외부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자기 차선을 잘 보면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 명시된 사항들은 필히 숙지해야 한다.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무사히 통과해 우리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 명랑한 교통문화정착에 다함께 노력하고, 각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임동연 무안소방서 진압팀장

社說

‘경제 투톱’ 교체... 한국경제 일으켜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경제리더십의 전면적인 물갈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 분위기가 쇠신 차원의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교체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퇴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총괄은 경제부총리가 담당한다고 못 박은 대목에도 눈길이 간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정책적 견해는 감정적 대응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 후보자가 아전 사령관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투톱’이 아닌 ‘원톱’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새 경제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하강하는

듯한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경기가 내려오는데, 고용이 늘어난 수는 없는 일이다. 업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소통을 많이 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진흥책 수립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52시간 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과제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새 경제팀이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외부 변수들이 내부 불안 요소들과 결합해 한국경제에 예상치 못한 수교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새 경제팀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

진영논리를 떠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새 경제팀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제작대리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Table with 8 columns: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Lists regional reporter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Gwangju, and Jeonnam.